

AUTHOR 김문상

TITLE 유마니스트 Rabelais와 종교개혁자 Calvin의
사상적 대립

IN 논문집, Vol.16 (1987)

이 論文은 1986 년도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유마니스트 RABELAIS와 宗教改革者

CALVIN의 思想的 對立

金 文 相 *

目	次
序 言	1
本 論	1
第一章 프랑스 文藝復興과 Rabelais 의 Pantagruelisme	1
1. Rabelais 와 프랑스 國語 및 文學의 再生	2
2. Humaniste Rabelais 와 自然 의 “善”性	2
3. Rabelais 의 Libéralisme ..	5
第二章 프랑스 humanisme 과 Calvinisme	6
1. 初期 프랑스 Réforme	6
2. Calvin의 思想과 Apóstolat ..	8
3. Le procureur de Dieu ..	10
4. Calvinisme 과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 (par J. Calvin)	11
5. Genève 에서의 Calvin 의 改革	12
6. Calvin 과 humanisme 의 斷切	15
結 語	17

* 全州大學校 佛語佛文學科 副教授

序 言

르네상스 時代의 文學은, 古典主義로 부터 現代에 이르는 豐富한 프랑스 文學의 母胎로서, 이에 對한 充分한 理解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그 後의 프랑스 文學의 全貌를 그 生생한 모습으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르네상스(再生)라고 하지 않고 *Restitution des bonnes lettres*¹⁾ (純文藝의 復舊), *Restauration*(復位), *Récupération*(復權) 또는 *Postiminium*(回歸)라 말하기도 하였고, *Nicola Bourbon*²⁾의 詩에서는 라틴어로 *Rena-scentes litterae*(再生한 文藝)로 썼었고, *Pierre Belon*³⁾은 프랑스語로 *La tant désirée renaissance*(그토록 바라던 再生)이라고 表現하기도 하였다. 그후 *Amyot*⁴⁾도 프랑스와 I 세가 *François I avait commencé de faire renaître et florir en ce noble royaume les bonnes lettres*, (이 高貴한 王國에 처음으로 純文藝를 再生, 꽃을 피웠다.)는 것을 想起시켰으며, 그후 *Boileau*⁵⁾도 그의 詩法⁶⁾에서, ; - *On vit renaître* ... (再生)하였음을 보았노라고 말 하였다. 흔히 用語의 遊戲는 正義를 내리기 보다는 術學과 詭辯으로 歸着하는 것이 常例이다. 처음으로 이 用語가 *Académie Française*에 수록된 것은, 佛語辭典 1718年 第二版에서 부터이다.

프랑스에서 르네상스라는 觀念상의 대상은 16세기에 해당한다. *Rabelais*와 *Calvin*의 思想的 對立을 考察함에 있어서, 위선 兩人的 生涯가 形成되 가는 프랑스 르네상스 期의 時代的 背景을 살피고, 같은 16世紀 *humaniste*로서 出發하였으나 如何히 發展해 가고, 完全히 離反되는 歸結로 이르게 되는지 그 科程을 16世紀 프랑스 文學史의 觀點에서 研究하고자 한다.

本 論

第一章 프랑스 文藝復興과 *Rabelais*의 *Pantagruélisme*

- 1) *Jean Lemaire de Berges* (1473 - apr. 1520), *François Rabelais* (v.1494 - 1553)
André Tiraqueau (1480 - 1588), *Louis Le Roy* (1510 - 1577)
- 2) *Nicoles Bourbon* (1503 - 1550)
- 3) *Pirre Belon* (1517 - 1564)
- 4) *Jacques Amyot* (1513 - 1593)
- 5) *Nicolas Boileau* (1636 - 1711), *Auteur des Satires, des Epôtres, de l' Art Poétique*

1. Rabelais와 프랑스 國語 및 文學의 再生

16世紀 프랑스에서 왜 하필 文學이 再生할 必要가 있었을 까닭이 없었다. 그것은 죽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古典 文學의 Restauration (復位)가 문제가 된다. 아니 古典 文學도 굳이 復位할 必要가 없었다는 說도 있을 수 있다. 古典 文學은 훌륭히 살아왔었고, 九世紀와 十三世紀, 즉 Charlemagne 大王(742 - 814)과 聖 Louis 九世(1215 - 1270)의 治下 때의 古典 文學 研究는 活潑하여서 Virgile⁶⁾와 Ovide⁷⁾는 그 때에도 이미 16世紀와 같은 程度로 愛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움이란 판테에 있는 것이다. 역시 文藝의 完全한 更新(authentique renouvellement de culture)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회랍 古典은, 以後에, 有名한 格言: graecum est, non legitur (이것은 회랍語 이다. 읽을 수 없다.)으로 烙印이 적히게 되었던 中世의 習慣에 反하여, 라틴 古典과 마찬가지로 존경받게 되었고, 헤브라이 語 研究 또한 復興하기에 이른다. 사람들은 한 作家 또는 高작 열명의 作家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古典 文學 全部를 理解하고 싶어 한다. 또한 作品 以上으로 古代 文化 全體를, 다시 말해서, 古代의 器物, 裝飾, 慣習, 趣向, 嗜好, 感情, 思想 등을 理解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註解나 堆積된 釋義들을 輕蔑하는 대신에, 항상 原典을 찾아 보고, 原典의 엄밀한 譯說을 確立하려고 기도 한다. 사람들은 때로는, 傳統的, 中世的, 國民的, 既成 藝術 形成을 떨쳐 버리고, 古典의 範例 즉 (회랍, 라틴 및 이태리)를 模倣하는데 熱을 올린다.

그렇게 되어서, 이처럼 豐富하여진 中世文學 때문에, 凡庸속에 埋沒되어 있었던 (그렇게 일커러지는) 프랑스 國語 및 文學의 再生이 問題化 되는 것이다.

2. Humaniste Rabelais와 自然의 “善”性⁸⁾

르네상스期의 프랑스 文學은 豐富하고도 獨特한 면이 있다고 말하여져 왔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事實은, 作品이 缺乏하고, 思想이 貧弱한데다 作家로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 獨自性이란, 오래동안 각자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6) Virgile, en lat. Publius Virgilius Maro, poète latin (v. 70 - 19 av. J. - C.)
Imitation des grecs, d Homère, de Théocrite

7) Ovide, en lat. Publius Ovideus Naso, poète latin (43 av. J.-C.-18 apr. J.-C.)

8) Naturalisme, Doctrine selon laquelle rien n'existe en dehors de la nature, ANT, Fantastique, Idéalisme

있는 자유, 라고 말하는 것 以外에는 별것이 없다. 다만, 하여간 그당시에는 그런 傾向이 새로운 풍조 였을 뿐이다. 實로, 이 자유를 行使하는 곳으로부터, 그리고 그와 같은 個人主義의 바탕으로부터, 또다른 하나의 思想이 흘러 나왔다. 이것은, 文藝復興의 가장 主要한 思想이라고 말할 수 있고, 프랑스 以外에서 까지도, François Rabelais가 그 權위라고 보는 데에 一致하는 바 그 思想이다. 卽, 自然의 善良 또는 自然의 神性を 믿는 思想이다. 이것과의 個人主義 思想과의 連關을 살펴 보면 卽, “우리는, 오로지 自然이 우리 自體內에 넣어둔(託)바 있는 곳을 擴充하여 뵈어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그 機會는 自然 그 自體가 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獨自性を 擴張할 때 따라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 各自의 마음 대로가 아니고, 차라리 自然에 따라 가야 하는 것이다. 同時에, 이것을 逆으로, 交互적으로 말한다면, 自然에 따른다는 것이 곧 우리의 個性을 擴張하는 所以가 되는 것이다.” Rabelais 小説의 「哲學」은 바로 이것에 不過하다. 설사, Rabelais의 大聲 哄笑의 하나 하나에 그런 깊이, 그런 神秘가 담겨 있을 것인가 하고 主張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Pantagruel」한 篇을 貫通하고 있는 意味는 그것이였다. 「Abbaye de Thélème」¹⁰⁾ 入口에 指示한 長詩로 씌인 布告文으로, 僧院에 入院할 수 있는 資格如否僧侶를 明示하고 있는데, 禁止된 部類로서; 僞善者, 僞信仰人, 따듯한 옷 입는 僧侶, 善男 善女를 껴어 먹는 僧侶, 陰謀家, 訴訟쟁이, 거짓말 쟁이, 인색한, 高利貨金 業者, 嫉妬꾼, 고집 쟁이 패들로 規定되었는가 하면, 反面으로 收容이 許可된 범위로서; 性良한 美貌의 男女로서, 福音(福音書)의 참뜻을 깨치고 이를 세상에 펼치는 사람들로만 制限하고 있다. 初期 宗教改革에 서식하면서도, 거이 無神論에 가까운 自由主義者로 기탄을 받았던 Rabelais의 理想이, 이 揭示文으로 表現되어 있다고 보인다.

文化史上的 使命을 다한 中世 修導院제도 및 頽廢期의 스킨라 神學에 對한 反抗과 諷刺는 비단 Rabelais-人의 專用物은 決코 아니었고, 이미 Erasmus (Desiderius)⁹⁾ Agrippa¹⁰⁾ 등의 辛辣한 批判의 對象이 되어 있었지만, Rabelais의 「Abbaye de Thélème」¹⁰⁾에서는, 自然에 對한 보다더 깊은 信賴와, 르네상스 時期의 尤마니스트 들의 強한 歡喜가 充溢한 Ltopia¹¹⁾의 夢想이 表出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唯一한 表則으로

9) Désiderius Erasmus Rotérodamus en, lat. humaniste (v. 1469 - 1536), auteur de Colloques et de l'Eloge de la folie. Esprit encyclopédique

10) Abbaye de Thélème, sorte de communauté laïque imaginée par Rabelais dans son Gargantua

11) Utopie, roman politique et social, en latin, de Thomas more (1516), L' auteur y fait un tableau critique de la société anglaise et européenne et imagine une terre où est réalisée l'organisation idéal de l'Etat.

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라는 대목은; 千年 以上前부터 면면히 흘러 내려온 世上事의 慣習임을 알면서도, 學校나 教會가 敎導하여 내려온 모든 것과 비추어 볼 때, 全面 否定으로까지 逆으로도 해석이 可能하기 때문에 Rabelais는 언제나, 스스로의 「放任主義」에 註釋이나 是正을 부치고 있다. 卽 「胎生이 좋고, 올바르게 자라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對話를 나누는 가운데 自然스럽게, 스스로 着實한 行動을 취하게 되는 것이며, 나쁜 행실을 의면하는 本能的 衝動을 느끼게 마련이다.」고 말하고 있다. 自然은 人間에게 美德을 배워주는 스승이라는 이 생각이 「Pantagruel」은 한 마디로 말하여 「文藝復興의 聖書」라고 까지 말하여지는 연유의 하나인 것이다. Pantagruel 속에 가득차 있는 Rabelais의 自然主義 곧 Pantagruelisme¹²⁾은, 人間界의 모든 惡德을: 「自然을 離反했기 때문에 생겨난」怪物 卽, 前記 Thélème 僧院에 入院이 禁止된 hypocrites, bigotry, vieux matagoty, marmiteux, borsoufleuz, Torcoulx, badaux 등으로 묘사하면서, 그 당시 까지 남아 있었던 中世의 여러 가지 教會 制度를 攻擊했던 것이다. 그는 作中에서, physis (自然)의 이름으로 Gargantua의 百科 辭書的 敎育 프로그램을 創出하여, 自己 擴張의 自由를 障害하고 있는 모든 것의 改造 또는 禁止를 要求하였다. 하지만 Rabelais는 사람들이 相像하는 것 같은 豫言者도 使徒도 아니었기 때문에, 改造나 改革이니 따위의 用語를 입박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意志와는 全然 無關한 行實을 通하여 그 뜻을 暗示하고, 組織의 精神에 依하지 아니하고도, 거이 無意識的인 誠心, 熱意만으로도 능히 이를 實證하고 있다면, Rabelais야 말로, 마음 속에 있는 意思를 行動으로 옮기는 實踐家이었던 것이다. 自然現狀으로서 그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自然의 發露라면, 그것이 가장 野卑한 것일지라도; 自然이 터전이 되어 있다는 것 밖에 하등 불품이 없는 미미한 것일지라도, 모두 例外없이 이를 사랑하였던 것이다. 要컨데 그러한 自然 현상은, 그것 自體가 벌써 그 究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自然에 適合하도록만 하는 것 밖에 더 좋은 方法은 없기 때문이다. 「自然에 따라서 生活 하여라.」라고 Stoïcisme¹³⁾은 권고하고 있는데 이 말은 異敎의 眞諦를 要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自然 勢力에 對한 崇拜는, 차라리 당 時代 一般의 思想이었고, Rabelais는 다만 그 가장

12) Pantagruelisme: mot créé par Rabelais qui le définira dans le prologue du Duert Divre, comme, certaine gaité d'esprit confite en mépris des choses fortuites. C'esu en somme, suivant le mot d'Emile Faguet, une sorte de stoïcisme gai

13) Stoïcisme, une forme de panthéisme, cour. courage pour supporter la douleur, le malheur, les privations avec les apparences de l'indifférence

詩情에 넘치는 한 대변인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 그의 「Pantagruel」이, 세상으로부터 「歐洲의인 影響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評價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 아직 基督教의이던 世界에서, 異教的 素養은, Rabelais 마저도 伊太利人처럼 純全한 異教徒로 變貌시키고 말았다. Rabelais 以外로; 그보다 먼저; 또는 그의 同時에, 이미 異教徒인 者가 勿論 적지 않았지만 다만 Rabelais처럼 熱烈히 그리고 것처럼 抒情的으로 異教徒이던 者가 따로 없었던 것이다.

3. Rabelais의 自由思想

Rabelais의 「Pantagruel」에서는 또 한가지의 特色을 엿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humaniste로서, 學者로서의 面貌의 밑바탕에, 가리아인의 風格, 卽 種族으로 보나, 氣質로 보더라도, 完全한 가리아인의 모습: 率直 談白하고, 露骨的이며, 快活한, 그래서 猥談과 諧謔에 能한 가리아인이고 따라서 Rabelais를 12·3世紀의 Fabliau作家の 계승자임을 確認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것이다. 16世紀에 이르기까지의 三百年間의 傳統이, 단번에 斷切될 수 없는 까닭에 Rabelais가 가리아인으로서의 특징을 지나고 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自然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作品인 「Gargantua와 Pantagruel」의 도처에 나타나는 荒唐無稽한 奇行談; 糞尿譚, 淫猥한 言辭, 頹廢期的 스킨라 神學에 對한 罵倒; 中世 僧院의 모양 특히, 그 制度에 對한 辣辣한 諷刺가 表出된 것으로 理解가 가는 것이다. 放從한 言行속에 僧侶다운, 더적질이 말하여, cordelier¹⁴⁾다운 바탕 위에, 文藝 復興期的 humaniste, 解剖學 教授 그리고 醫師로서의 資質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一身上 미치던 環境의 變化에 따라 그의 모습이 複雜하게 바뀌어졌고, 또 그의 複雜한 모습 그 自體가 渾沌한 時代의 思想을 表現하고 있는 것인데, 그속에서도, 뚜렷이 돋보이는 하나의 特徵이 나타난다. 他를 要約하고, 또 이것을 結集하여, 우리에게 分明히 하고저 하는 humaniste Rabelais의 自由 思想인 것이다.

「Rabelais는 自然의 善을 믿고, 人間의 最大한 敵은 習慣, 規則, 權威 및 束縛이라고 불리우는 것임을 믿었으며, 이에 대하여 모든 方法을 卽, 嘲笑와 過激에 罵言을 다하여서

14) Cordelier, Religieux de l'ordre de Franciscain qui porte pour ceinture une corde à trois noeuds

라도 싸워서 攻擊하여 멸망시키지 않으면 양되는 것이 바로 이 敵임을 믿었던 ; 그리고 教育의 傑作은, 本能의 解放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事實을 믿고 있었던 最初의, 가장 偉大한 프랑스 유마니스트 이었음.]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第二章 프랑스 humanisme 과 Calvinisme

1. 初期 프랑스 Réforme

프랑스와 一世는 前述한 르네상스라는 革命이 무엇인지 理解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않다면, 다만 直接 여기에서 抽出 해낼 수 있는 利益의 方面 밖에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意氣 堂堂한 文藝 復興 運動 以後에 얼마나 腐敗한 風俗이 도도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었는지를 確認하였을 때에, — 그리고 自然의 哲學이 파괴되는 것은, 어떤 意
味에 있어서는 人間 社會의 根柢, 基礎 그 자체에 불과하다는 事實을 깨달았을 때에 — 藝
術이라는 奇蹟을 위하여, 너무나 비싼 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된듯 하다.
거기에 宗教 改革 運動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宗教改革을 그 意義에 있어서 文藝 復興의 한 部類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淺薄한
哲學은 없을듯 하다. 宗教改革은 分明히 文藝 復興의 反對이다. 唯一한 共通點은, 한동안 쌍
방이 個人 解放을 위하여 애를 썼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편은 한동안 그앞에 同一한
敵 다시 말해 Scolastique¹⁵⁾ 및 기독교 神學者라는 적수를 대치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한
때 서로 같이 같은 싸움을 벌리고 있었다. 또 다른 表現을 한다면, 이 두 精神은, 하여간,
그 忌避하는 어떤 狀態를 根絶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또 번가리 가면서, 現在에 反抗하여
過去에서 서로의 支持點을 취하거나 또는 찾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兩者의 相似는 여기 까지의 일이다. 後者, 卽 宗教改革은, 얼핏 보아 想像할수
조차 없는 意外의 性質을 그때 벌써 그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文藝
復興의 動機가, 다만 世界를 非基督教化 하고 이것을 異教로 還元시키는 것이라면 宗教改

15) cf. Michelet, Mémoire de Luther; et Merle d'Aubigné, "La Reformation au temps de Luther"

16) Scolastique (XV^e), Philosophe et théologien relatif aux écoles du moyen âge et à leur méthode d'enseignement, fondée sur la tradition et l'emploi du syllogisme.

革이 획책 하는 바가, 이에 反하여, 基督教을 그 原始期の 엄숙한 조직에 돌려(還)보내는 일 이라고 본다면, 이 宗教 改革이란 實로 뜻밖의, 엄청난 것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때때로 引用되는 Luther의 말을 또다시 되살려 볼 필요가 있을듯 하다. : 「우리 독일인은, 아직 칠하지 않은 canvas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伊本利人은 雜多한 謬論으로 塗色이 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값비싼 饗宴보다도 더 나은 精進 料理를 먹고 있으며, 우리가, 입는 被服 全體에 한 Florin을 쓸 때 그들은 명주옷 한장이 10 Florin을 던진다. 그들의 카니발은 아주 어색하게, 狂的인 모양으로 치룬다」^{B 15)} 實로, 이 말처럼, Luther가 로마에 있어서 文藝 復興의 양태를 목격하였을 무렵의 激烈한 憤怒를 鬚髮하게 하는 것은 없다. 藝術의 隆盛, 饗宴의 狀大, 衣服 豪華는 전연 Luther의 마음을 매혹하지 못했고, 도리어 그로 하여금 Schisme¹⁷⁾에 몰고 가게 하였을 뿐이었다. 그는 宗教 改革이라는 것을 唱道하고 있으면서, 法王을 것처럼 공격하였을 뿐이 아니다. 카톨릭教를 否定하였을 뿐 아니라, 文藝 復興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音響은 Calvin의 著書에는 그렇게까지는 현저하게 나타나 있지 않을지 모른다. 하여간 Calvin은 당연히 프랑스 문학 사상에 빛나는 대작가의 한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 프랑스 近代의 論理的인 散文의 創造者로서 評價할 수 있다. Théologien으로서 그는, 그의 「크리스트教 教程 -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¹⁸⁾」을 1536에 Bâle에서, 그리고 1541에는 Genève에서, 각각 라틴어版과 프랑스어版으로 출판 發表하였다. 이 책의 文體의 色體(la couleur) 緻密性(la densité) 그리고, 움직임(le mouvement) 때문에, 프랑스語 散文의 歷史에 하나의 새로운 紀元을 세웠다. 무엇 보다도 中世에 프랑스語(國語)가 蔑視되어 學術語로는 라틴어로만 著述되었던 時代的인 상황에서 이 「基督教 教程」이 프랑스語 그것도 langue vulgaire에 의하여 表現되어 國語에 依한 表現 領域의 征服에 새로운 한 段階가 附加되게 되었다는 점 특기할만 하다.

Calvin은 16世紀가, 낡은 프랑스 散文의 創始者이고 그의 「基督教 教程」은 16世紀 프랑스 文學의 良書로 區分이 된다. 그렇지만 確實히, Rabelais의 「Pantagruel」과 그렇게도 相違한 책이란 想像할 수 조차 없다. 그렇게 「偶然한 일을 蔑視 않는 책」, 그와

17) Schisme: 로마 카톨릭과의 이교, 절연; 法王否認이라고도 한다.

(Séparation des fidèles d'une religion, division d'opinions, ANT. Unification)

18)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 par Jean calvin (1509 7 / 10 — 1564 5 / 27)

같이 自然의 善함을 믿지 않는 서적을, 내세울 수 없다. 「사람은, 하늘의 加護가 없어도 稟性의 「汚穢」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이에 또다시 墮落하게 되는 것을 막아 낼 수 있다」는 思想을 Calvin처럼 強力하게 否定한 者가 없었다. 또한, 우리는, 本能의 自由에 몸을 맡겨도 좋고, 그래서 다만 本能을 滿足시키는 것을 두고 人生 究極의 目的을 達成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는 思考方式을, Calvin처럼 否定하려고 하였던 者는 없었다. 또, 自由로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以上은, 마음껏 이것을 利用하여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Calvin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 도리어 Calvin은 自由를 放棄하는데에 自由의 참뜻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2. 思想과 傳道 (l' Apostolat¹⁹⁾)

福音主義者들(Evangéliques)²⁰⁾가 努力하여 얻어놓은 結果를 遂行함에 있어서 Calvin은 엄격 그 자체였다. 「聖書에는 온갖 教理가 包含되 있어서 아무도 더以上 附加할 必要는 없고, 사람의 마음을 聖書 讀解단을 위하여 준비하므로서 理解가 容易하도록 하여 주는 일만이 요긴하다. 聖典 讀解時 重要視할 것은 字句 그 自體가 아니며 內容이고, 理解하는 것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믿음은 盲目的이어서는 안되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며, 어떠한 研究도 禁止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는 없으니 諦念하여야 한다. 아무리 研究하여도 모든 神秘를 풀어서 解明해 낼 수 없을 터이고, <<誤謬보다는 더 術學的인 無智가 存在하기 때문이다. — <<il y a une ignorance plus docte que l' erreur>>.

그의 學說의 根柢를 이루고 있는 教義는 << thèse de la prédestination >> : 卽 救靈 豫定說(宿命說)이다.

la thèse de la prédestination: nous sommes destinés d'avance, par la présience divine, à la damnation ou au salut. Il s'ensuit que la foi seule, à l'exclusion des oeuvres, justifie. Le livre arbitre n'est qu'illusion; la nature humaine pervertie par le péché originel, vouée au mal, elle n'en peut être sauvée que par la grâce dont elle ne peut payer.

19) Apostolat, prédication, propagation de la foi.

20) Evangélique, qui est de la religion protestante, fondée essentiellement sur l'enseignement, et la vie du christ connus par les Evangiles. Evangile par ext. Nouveau Testament tout entier.

우리들은 神의 豫見에 의하여, 미리부터, 滅亡이나 救援받도록 運命이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行爲는 一切 除外되고, 다만 믿음만이 免罪받을 길이다. 自由 意思는 幻想에 지나지 않다. 原罪에 의하여 墮落한 人間性은, 惡에 맡겨져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獲得할 수도 없는 無償의 賜物인 恩寵에 의하여서만 救援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教義에 依據하여 된 Calvin의, 峻嚴하고도, 거이 微笑의 그림자도 없는 教育論은, 그의 小論이나 書簡에 나타나 있다. 그중 몇가지를 言及한다면: 迷信으로서 非難받아야 하는 어떤 종류의 카톨릭의 慣習에 對하여 「聖遺物考」(Traité des reliques 1543); 異端 分離派에 對하여 「再洗禮派에 對한 警戒 武裝을 勸告함」(Brève instruction contre Anabaptiste 1544; 自由 思想家의 一派를 論駁함(Contre la secte des Libertins 1545; 懷疑者 또는 快樂主義者에 對하여(Contre les sceptiques et les épicuriens; 「니코 데모스派 여러분에게 보내는 辨明(Excuse à messieurs les Nicodémites-1544~) 등이 있는데, Calvin은 變化와 生彩에 가득차 있으면서도 罵言이 즐비한 이들 Pamphlets를 써 보내고 있다. Calvin은 또한 王侯(프랑스와 一世와 Marguerite de Navarre 등)나 Francfort; Poitiers 등 所在 改革派 教會들(Eglises réformées) 앞으로 보냈던 約三百通의 書簡文을 通하여 道德的 墮落; 風俗의 放縱; 放心(la morales facile; licence des moeurs; manque de scruple)을 닦할 뿐만 아니라 極히 微細한 弛緩의 微候(이를테면 découpées된 chausse의 流行 등)에 이르기까지 뼈아프게 攻擊하고 있다. 그와 같이 Calvin은, allumettes de Satan을 무서우리 만큼 細心하게, 조심해가며, 끝까지 追擊하는데 그의 熱情을 다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愼重한 政策을 취하여, 暴力은 否定하고 信者들에게 中庸과 秩序 그리고 個個人의 所有權을 尊重할 것을 勸告하였다.

Mais sa politique est prudente: il désapprouve la violence, pour inviter ses fidèles à la MESURE, au respect de l'ORDRE et de la PROPRIÉTÉ.

Calvin은 두 가지의 면모를 함께 갖추고 있다. 峻嚴하고도 明晰한 知性이 첫째이고, 꼼꼼하고 傲慢한 fanatisme(狂信, 盲目的 信仰)이 둘째이다. 그래서 이 두번째 성격이 우리로서는 그의 첫째의 면모를 망치고 마는 것이다.²¹⁾ Jules Michelet의 表現처럼 그는 皓皓하게 빛나고 있지만, 一刃 兩斷하는 시퍼런 칼날과도 같다. 게다가 사람의 努力을 낮게

21) Michelet(jules). historien français né à garis (1798 - 1873) Libéral; professeur au collège de France. Auteur d'une histoire de France et d'une 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Ouvrages Litt: La femme, la mer

評價하여도 卑下시키려는 이 執念에는 실로 頑固함에 투철하여서 「앞길에는 永罰과 消感—蕩盡—이 놓여 있을 뿐 … 모든 세상 사람은, 각자 안에 온갖 惡의 씨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點에 있어서 Calvin은 유마니스트들과 인연을 끊고 있었다.

Calvin est double : une intelligence inexorable et claire, un fanatisme pointilleux et hautain. Le second nous gâche le premier. C'est « la lumière d'une lame qui brûle, mais qui tranche (michelet). Puis, cet acharnement à rabaisser l'effort des hommes est bien raide : « En leurs voies il n'y a que perdition et dissipation ... En chacun homme (il y a) la semence enclose (de) toutes les méchanceté. » Par là Calvin rompait avec les humanistes.

Calvin에게는 豐穰한 熱을 끼치는 太陽이 缺乏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Calvin 自身の 말에 依하면 「나는 항상 어두운 곳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Il manque sur lui le soleil des ardeurs fécondes : « J'ai toujours aimé l'ombre. - Ego umbram semper amavi. - »

3. Le < procureur de Dieu >

Genève 에 옮기고 神學教授로 처신 하게된 Calvin은, 1538년에 自由主義 思想家들 libertins 에게 쫓기어 스트라스불에서 Melanchton²²⁾과 Luther²³⁾를 알게 되었는데, 얼마후에 다시 초청되 와서 Genève 에 定着하여, 他界할 때까지 (1541-1564) 全能의 支配者 (maître tout-puissant)로서 自己의 權威와 信者들의 올바른 信仰을 지키는데에 급급 하였다. 疑心스러운 者에 대하여는 容赦없이 對處하였는데 그래서 1553年 10월에 Servet²⁴⁾는 火刑에 處하여졌다. 유마니스트로서 神學者인 Sébastien Castellion²⁵⁾은 프랑스語와 라틴語로 각각 聖書를 번역하였고, 寬容을 說教하였는데 1544년 7월에 追放 당했다.

獻身의인 情熱에 불타고 있었던 Calvin은, 說教와 著述과 忠告를 아낌없이 뿌렸고, 대부분 라틴語로 著述된 FOLIO版 9卷을 밀들지 않은 어마어마한 著作(1671出版)의 大部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씌어졌던 것은 Genève에서의 일이었다.

22) Melanchton (phillipp) (1497-1560) Théologien espagnol.

23) Luther (Martin), théologien et réformateur allemand.

24) Servet (michel), médecin et théologien espagnol brûlé vif à Genève en 1553 à l'instigation de Calvin.

25) Castellion (Sébastien (1515-1563), théologien et humaniste français.

史家 Michelet 가 描寫한, 젊은 Calvin 의 輪郭은 萬人의 記憶에 沒박혀 있다: 「그는 무서운 努力家였다. 苦惱에 가득 찬 風貌와 貧弱하고 衰弱한 몸을 지니고 노상 徹夜하며, 육신을 깎아 가며, 生命을 불태우고, 不徹 晝夜 일을 하였다.

« C'était un travailleur terrible, avec un air souffrant, une constitution misérable et débile, veillant, s'usant, se consumant, ne distinguant ni jour ni nuit. ».

아름다움이나, 音樂 같은 것 《그밖에 神이 베풀어준 正當한 열매》를 사랑하는 일도 알고 있었던 그는, 보다 純粹한 神學과 德에 가득찬 社會를, 教義上으로 確立하는데 그 一生을 바쳤던 것이다.

Sensible d'ailleurs à la beauté, et à la musique et « autres fruits licites de la b n fice divine », il consacra sa vie   fondation doctrinale d'une th ologie plus pure et d'une soci t  vertueuse.

4. Calvinisme 과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 (par J. Calvin)

프랑스 Protestantisme (Calvinisme)의 經典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tienne 는, 그 프랑스版이 1541年에 「王에게 바치는 書簡」과 함께, 프랑스語로 씌인 最初의 神學的 論文으로서, 프랑스 語學史, 文學史上으로 보더라도 特記 할 만한 作品이다. 또 이 作品의 內容에 關하여는 別途로 完全한 한 卷의 研究書가 必要할 만큼 大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本 論文의 記述上의 內容에 限定 시키기로 한다. 問題가 되는 部分은 卽, Calvin 이 「王에게 바치는 書簡」을 添付하여 「基督教 教程」을 上梓할 때 그는 分明히 humaniste들과 손을 끊었었다. 그는 이미 humanisme 의 最後의 線을 밟고 들어가 戰鬪的 行動의 世界로 뛰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基督教 教程」이, Calvinisme 의 經典이고, 新教徒(huguenots)²⁶⁾들이, 로마 教會에 對하여 揭示해 낼 수 있는 信仰 簡條(Credo)라고 할 수 있고, 예컨대, 다음 같은 特徵이 있다 하는 사항과에 注目하면 充分하리라 생각한다. 卽, 이 作品의 第一編 第一五章 「人間은 如何히 創造되었는가」 Quel a est  l'homme en sa cr ation 에 있어서, Calvin은 「人間은 이미 自由 意志 franc-arbitre를 갖고 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만약 그 가 원한다면 永生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記述하면서도, 아담이 그 스스로의 意志에 의하여

26) Huguenots, Pej, Surnom donn  aux protestants Calvinistes en France, par les catholiques du XVII^e au XVIII^e s.

惡에 유혹된 以後로 부터는, 人間에게는 自由 意志가 喪失되 있어서 그것을 人間으로부터 追求하는 사람은, 전혀 無分別 insensées 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方式은, 人間の 비참함; 慧質을 熟知하고 있으면서도 人間の 向上과 人間の 理性을 믿었던 Erasmus 를 위시한 humaniste 들과 對蹠된 立場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한걸음 더 앞세우면 Luther 의 教理를 넘어서서, Calvin 의 嚴格한 豫定說 Prédetermination²⁷⁾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基督教 教程」을 著述한 Calvin 과, Erasmus 와의 對比는, Calvin 이 그 成長 過程속에서 Erasmus 에게 빚진 바가 많았기 때문에 興味있는 여러 問題를 提出해낼 수 있을 듯하다. — Luther 의 「奴隸 意志」說에 對하여 「自由意志」說을 갖고 있었던 Erasmus 는, Calvin 의 「豫定說」에 對決할 수 있을 만큼의 生命이 주어지지 않았었다. Calvin 이 humanisme 으로부터 Calvinisme 으로 옮기는 時期에는 이미 他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Erasmus 의 弟子라고 말할 수 있는 François Rabelais 는, Calvin 의 「豫定說」에 對하여 神學的인 論爭의 形態는 아니지만, 對決하게 되는 것이다.

5. Genève 에서의 Calvin 의 改革

1534년 9월에 Calvin 은 Genève 의 教會에서 聖書의 講義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第一次 Genève 改革 行動을 開始한 셈이 된다. 여기에 本 論文의 內容이 될 Calvin 의 生涯의 限界가 있다. 그후 Calvin 이 날마다 보내게 되는 鬪爭의 生活은, 1550년대 前後에 일어난 困難한 여러 事件을 넘어서, Calvinisme 의 確立을 目標로 하여 막진한 記錄이라 할 수 있다. 1550년대부터 激化하는 프랑스 國內의 宗教 戰爭에 있어서 新教 huguenots, calvinistes 側의 動向을 注視하면서 指導하고, 同時에 Genève 에서는, 肅正에 肅正을 거듭하여 피를 흘리기도 하였던 Calvin 은, Calvin 宗教人으로 부터, 또 近代 社會史家 們으로부터 얼마나 그 偉大함을 찬양받을지 몰라도, 벌써 프랑스 유마니스트의 潮流로 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人物이 되고 만 것이다. Calvin 의 偉業은, 벌써 別途의 面에서 詳論되어야 할 것이고, 이 偉業의 遂行이 始作되었던 1536年 以後의 그의 生涯에 關하여서도 多角度로

27) Prédetermination ; Doctrine de calvi sme, janséisme, selon laquelle Dieu aurait, par avance, élu certaines de ses créatures pour les conduire au salut par la seule force de sa grâce et vouer les autres à la damnation éternelle sans considération de leur foi ni de leurs

詳細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하는 바이다.

1544年 4月, Calvin은 第二次 Genève 改革에 着手하여 徐徐히 成功의 機會를 쥐고 있었는데, 「니코데모스派 여러분에 對한 Jean Calvin의 辨明, Calvin의 지나친 嚴格함에 對하여 그들이 한 呼訴에 關하여」 - Excuse de Jean Calvin à Messieurs les Nicodémistes²⁸⁾ sur la complainte qu'ilz font de sa trop grand' rigueur 라는 小冊子를 上梓하였다. Genève에 있어서의 苛酷한 鬭爭에 있어서 勝利하기 위하여서는 自己가 使命으로 믿는 新教會의 確立과, 이 教會를 支持하지 않은 者들을 抹殺하기 위하여, Calvin은 以上 妥協的인 方法으로만 遂行할 수 없게 되었다. 이 小冊子로서, Genève 사람들은 勿論이러니와, 프랑스 國內에서도 同調와 非難이 半半인 프랑스人들에게 까지도 自己를 向한 一切의 抗議와 批判을 돌려 보내면서, 올바른 信仰으로 살아 나갈 穩當한 길을 깨우치며 한 편 優柔不斷한 態度를 나무랐던 것이다. Calvin은 이 咀呪할 「니코데모스의 무리들」을 4종류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自己의 利益을 위하여 福音書를 說教하는 者들, 둘째는, 福音書에 關해서 「즐겁게, 貴婦人들과 같이, 놀이(遊) 半半으로 주고 받는 者들」인데, 이런 者들 가운데 어떤 者가 포함 되었을까? 「貴婦人들과」 avec les Dames 라는 제목의 貴婦人들 중에서, 가장 有名한 人物은, 당연히 marguerite de Navare 公妃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信仰이 「貴婦人들의 空虛한 마음을 채우는 道具가 되거나, 立身出世를 위한 通行證의 역할을 하고 있는 限, 信仰은 何等 結實을 期待할 수 없을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Calvin은 「納得하여 안기는(抱) 信仰을 排除하고, 그 대신 「強制로 賦課되는 信仰을 主張하고, 自己의 信仰과 相異한 信仰은 一切 邪說로 한다 하는 立場에서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의 絶大的인 自信感과 不退轉의 使命觀과는, 무서우리 만큼 露骨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宗教(信仰)에 의한 밖으로 부터의 人間 統制 및 變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의 方法은, 사람의 안(內側) 確立된 信仰(宗教)에 의한 人間 變革의 方法을 全然 考慮에 넣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

「니코데모스의 도당」으로서 세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류의 者들이다.

「세번째 種類의 者들은 이런 者들이다. 卽, 크리스트教를 거반 哲學으로 바꾸어 버리고, 或은 적어도 現實의 事態를 별로 重大觀 하지 않고, 무엇인지 重要的 改革이 이루어지는지 어

28) Nicodémistes (Nicodème), nom d'un juif pharisien, disciple de Jésus-Christ, celui-là posa au Christ des questions naïves ; On lui a attribué un Evangile apocryphe.

편지 라고 하는 것에는 全然 無關하다는 듯한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사상이 危險하다고 보일 때는, 그 일에 挺身하여 움직일 勇氣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 보다 또, 一部에는 다음과 같은 자들도 있다. 卽, 그 머리 속에서, 神을 섬기는 術로서, 프라톤의인 觀念을 여러가지로 그려냄으로서, 敎皇廳에서 나타나 보이는 空虛한 迷信의 大部分을,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認容하는 자들이다. 이 一派는 모두가 이른바 文藝의 徒黨들이다. 그렇다고 모든 文藝에 중사하는 人士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 나는 모든 人間의 學問 — sciences humaines 은, 만약에, 그것이 이와 같이 크리스트 敎徒의 熱情을 冷却시켜, 그들을 神으로부터 除外시키는 原因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地上에서 追放 되버리는 편이 훨씬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思考 方式으로 잠자고 있는 學究의 人士들이 있을 것이다.

Il y a la troisième espèce de ceux qui convertissent à demi chrétienté en philosophie, ou pour le moins ne prennent pas les choses fort à coeur, mais attendent sans faire semblant de rien voir s'il se fera quelque bonne réformation. De s'y employer, en tant qu'ils voient que c'est chose dangereuses, il n'y ont point le coeur. Davantage, il y en a une autre partie d'eux qui imaginent des idées platoniques en leurs têtes, touchant la façon de servir Dieu, et ainsi excusent la plupart des folles superstitions qui sont en la Papauté, comme choses dont on ne se peut passer. Cette bande est quasi toute de gens de lettres. Non pas que toutes gens de lettres en soient. Car j'aimerais mieux que toutes les sciences humaines fussent exterminées de la terre que si elles étaient cause de refroidir ainsi le zèle des chrétiens et les détourner de Dieu. Mais il se trouvera beaucoup de gens d'étude, qui s'endorment en cette spéculation : ... (Excuse à Messieurs les nicodémites, opus cite, pp.218-219.

위 第三의 種類인 「니코데모스派」는 確實히, Néo-platonisme 에 最後의 마음의 安息處를 求하였던 Marguerite de Navarre 公妃 또는, Calvin 측으로 보는 많은 humanistes 들에 關한 것이라고 짐작이 가는데, 1544년 무렵의 Calvin의 態度가 至極히 分明하게 나타나 있다. 이 態度는 Calvin의 行動의 前進과 함께 더욱 더 強化된다. 그리고, 1553년의 Michel Servet 事件과, 그때에 發表한 여러가지의 異端者 根切論에 이르르면, 지난날의 「異端者」의 한 사람이던 Jean Calvin이, 이번에는 異端者 製造人이 되지 않을 수 없어서, Calvinisme의 王者를 目標로 하는 Calvin에 의하여 追放 당한 Sebastien Castellion의 批判을 받은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유마니스트에 對한 非難에 關하여, Calvin은, 一般 商人이나 市民들의 그들의 작은 平和를 지키기 위하여, Calvin의 敎를 忌避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Excuse à Messieurs

les Nicodémites, opus cité 221-223) 여러가지 彈壓 때문에 畏縮된 市民들의 心根이 그러한 데도, Calvin의 이와같은 要講은 極히 苛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Calvin은, 또 「Lucianus 또는 Epicurus의 徒黨, 다시 말해 神을 없이 여기는 者들은 모두가 福音에 따르는 척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를 冒瀆하고 있으며, 그것을 寓話정도 만큼도 이 뜻을 重要視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여기서 그들에 관하여 말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을 訓戒하여 그들을 내편으로 끌어 드리길 원하더라도, 전연 時間의 浪費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Quant aux Lucianiques ou Epicuriens, c'est-à-dire tous contempteurs de Dieu, qui font semblant d'adhérer à la parole et, dedans leurs coeurs, s'en moquent et ne l'estiment pas plus qu'une fable, Je n'en ai pas voulu parler ici. Car ce serait bien temps perdu de les vouloir gagner par admonition, (Excuse à Messieurs les Nicodemites, opus cité, pp.223-224.

이 Lucianus나 Epicurus의 徒黨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는 分明치 않지만, 이 「tous contempteur」속에서, François Rabelais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推定이 Louis Thuasne²⁹⁾의 Rabelais 研究에 言及이 들어 있다. 事實로, 적어도 1530年代에는 Erasmus를 따라서 分明히 福音主義를 바꿨고 있었던 François Rabelais는, 「突然한 變心끝에 信仰을 強制로 賦課하게 되는 일에 뛰어 들기 전의」 Calvin과는, 똑같은 目的을 위하여 걸어 가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1542年 무렵부터는, Calvin의 動向에 反對하기 始作하여, Calvin을, Rabelais 식의 言語로 罵倒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그 記錄은, Rabelais의 作品속에, 여러모로 나타나 있는 것과 같다.

要컨데, 「Excuse à Messieurs les Nicodémites」는 Calvin으로부터 humanisme에 내던져진 절교장이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6. Calvin과 humanisme의 斷切

Jean Calvin은, humaniste들에게 絶交狀을 내던지기 전에는 humanisme의 샘플을 펴서, Erasmus나 Budé³⁰⁾의 가리킴을 충분히 利用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29) Louis Thuasne : Etudes sur Rabelais, Rouillon, 1904, p.406.

30) Guillaume Budé (1468.1/26-1540.8/23).

의 「絶緣狀」은 humaniste들에게 상처를 입혔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의 「크리스
트敎 敎程」은 分明히, 새로운 時代의 到來를 알리는 記念碑의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Calvin은, 그의 信仰을 確立하여 이것을 넓히기 위해서는, 카톨릭 敎會의 사람들
以上으로, humaniste들 (Nicodémistes) 가운데, 증오 할만한 사탄을 發見해 냈던 것이다.
Erasmus는 그의 「平和의 호소」 Quera Pacis (1517) 중에서, 「좋은 學藝는, 人間을
人間답게 하고, 哲學은 이를 더욱 人間답게 하고, 神學은 이를 聖스럽게 만든다.」³¹⁾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人間의 自發的인 放棄를 설득하고, 學藝는, 니코모데
스 도당을 만들어 내는 邪惡한 逆效果가 될 수 있다고 斷言하였던 Calvin에 있어서, 로
마 敎皇 以上으로 憎惡와 咀呪에 상당하는 것이 될지 모른다. 「Erasmus가 產卵한 것
을, 이를 Luther가 孵化시켰다.」 하고 말하여 지는 것은 매우 適切하고, humanisme의
王者格인 Erasmus와, 宗教改革의 始祖와의 連關을 巧妙하게 表現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Calvin은, 또다른 하나의, 그러나 같은 卵을 孵化시켰다. 그런데, Erasmus
는, Luther나 Calvin의 強行策의 結果로 惹起된 모든 悲慘事나 混亂의 責任을 지지 않
으면 안된다는 것일까? 아마도 Erasmus에게는, Luther나 Calvin의 行動的인 業績
으로부터 생겼을지도 모르는 成果를, 自身の 功으로 할 뜻은 없었던 만큼, 悲慘과 混亂
을 自身の 罪로 認定할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Erasmus는, Luther와 Calvin과의 出發點에 함께 서 있었던 것은 確實하지만, 그후
로부터는 Luther나 Calvin이 敢히 強行策을 취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도록, 平生을
걸어서 努力하는 일 밖에는 별 수 없었던 것도 確實하다. 아마도 humanisme의 限界와
機能은 儼한 귀결일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M. Mann³²⁾은, 그의 「Erasmus와 初期 프랑스 宗教改革」 Erasmus et les débuts
de la Reforme française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alvinisme은, 16世紀에 있어서, humanisme의 桴(對)이 되는 必然的인 것으로 생각 된다.
서로가 牽制하면서 相對方을 돌보이게 하고 있다. 激發하는 새로운 衝動을 느끼며, 人間의
힘이나 運命에 對한 甦生한 信賴에 充滿한 世界에 있어서, Rabelais를 補充하며 또한 是正하
기 위하여, 謙虛 卑下를 가르키기 위해서는, Calvin이 꼭 必要하였다. 이 같은 時代에 Fon-

31) M. Mann : Opus cité, p.186. (Querela Pacis, éd. de Leyde, IV, Col. 628 D).

32) M. Mann : Opus cité, p.188.

tainableau 宮의 화려한 迴廊은 裝飾되어 있었지만, 新敎의 敎會는 裝飾을 억제로 뜯긴 상태로 故意로 빨가 벗긴 모습이 된 Calvin의 敎會堂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表現되는 두 가지의 極端은, 하나의 源泉으로 부터 흘러 나온 것이었다. 이 源泉의 代表者는 Erasmus 였고, 그는 이 世紀의 初頭에 있어서, 두 가지의 變展의 出發點으로서, 양쪽 사이에서 있는 것이다.

Le calvinisme semble le pendant nécessaire de l'humanisme au XVI^e siècle : l'un contrôle et fait ressortir l'autre. A un monde tressaillant du nouvel élan, enrichi par la confiance renaissante dans les pouvoirs et dans les destins de l'homme, il fallait bien un Calvin pour prêcher l'humilité, pour suppléer, et corriger Rabelais. La même époque a vu orner les galeries splendides de Fontainebleau et dépouiller les églises protestantes jusqu' à arriver à la nudité voulue du temple calviniste : mais les deux extrême ainsi représentés avaient jailli d'une source. Cette source, Erasme en est représentant ; il se tient entre les deux, au commencement du siècle ; comme le point de départ de la double évolution.³³⁾

이 Mann의 所說은, Erasmus의 立場과 humanisme의 位置와, Calvin의 「使命」과에 對한 公正한 評價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리고, Mann은, 1936년에 上梓된 「크리스트敎 敎程」은, 險惡한 時代에 있어서, 時代 그 自體에 감추어진 원망의 具現化인 것과 同時에 그것이 Calvinisme의 礎石이 된다는 것을 充分히 認定 하면서도, 한편 그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onae」는, 「humanisme의 否認」 la négation de l'humanisme 이라고도 斷言하고 있는 것이다.

結 語

Rabelais (1494?~1553?)와 Calvin (1509~1564) 兩者 사이의 個人的 接觸, 相互 交涉 可能性에 對한 論議는 資料가 不備하여 거의 空想에 가까운 推測에 不過하지만, 서로가 相對方의 存在를 認知하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評價를 내리고 있는 若干의 文獻은 있

33) M. Mann : Opus cité, pp.186-187.

어서 그 信憑性은 確實할 것 같다. — Calvin은 1533年 무렵부터 Rabelais의 反宗教의 내지는 無神論的 傾向을 눈치 치고, Rabelais를 敵으로 白眼視하고 있었다. 그래서 솔본느 神學部가 내린 「Pantagruel」의 禁書 處分을 當然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A. Lefranc 教授說³⁴⁾) 한편 Rabelais는 「第二書 Pantagruel (1542年版)」의 序詞 가운데서, abuseurs와 seducteurs 사이에 Préstinateur C = prédestinateur — 救靈豫定主義者)와 Emporteur C = imposteur — 詐欺師) 두 語彙를 挿入함으로서 Calvin을 嘲笑하였고, 1544年에 벌써 Genève의 王者가 된 Calvin은 Excuse aux Nicodémites에서 Rabelais를 神을 업시(蔑) 여기는 루키아노스와 한패(徒)로 辱하고 있다. 이에 對應하여 Rabelais는 1546年에 上梓한 「第三書 Pantagruel」에서, Cocu 論議의 饒舌 속에 故意로 네번이나 Praéstiné (= prédestiné)³⁵⁾라 하는 字를 使用함으로서 Calvin을 愚弄하고 있다. 하나 여기까지는 별것 아닌 것으로 치고 라도 1550年에는, Calvin으로 부터 俄然 明白한 反擊이 들어 왔다. 1550年에 上梓된 De Scandalis (Traité des Scandales ...) 中에서 Calvin은 매서운 表現으로 — 「그 따위들은 不遜하게도 항상 福音을 輕蔑하고 있었는데 ... 그들의 영혼은, 개 돼지와도 하등 달을 바가 없다. 그 밖에 Rabelais, Des Périers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福音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 盲目이 되었는데 ... 이는 그들이 사탄에 걸려 들어 神聖한 福音을 모독했기 때문이다.」³⁶⁾라고 記述함으로서, 福音主義에 共鳴하고 한때 宗教改革에 同情하던 Rabelais를 仇敵으로 宣稱하였고, 그것에 對抗하여 Rabelais는 역시 이름을 明白히 들어서; 1552年에 上梓된 「第四書 Pantagruel」等 XXXII章을 通하여, Physis — Antiphysis 論議를 벌린 끝에 Antiphysis가 낳은 Quaresme prenant과 같은 醜怪한 것들 가운데 「Genève의 詐欺師 요 귀신 들린 Calvin徒黨」을 包含시켜서 罵倒했던 것이다.

34) Abel Lefranc : Histoire du Collège de France, Hachette, 1893, p.133 sq.

35) F. Rabelais : Pantagruel, Chapitres XXVIII et XXXVI.

36) Corpus Reformatorum, t. XXXVI. (Thuasne, op.cit., pp 409-411.)

RESUME

Le fait historique très important de la Renaissance française, c'est la substitution de l'individualisme, du culte de la « vertu », c'est-à-dire de la complète floraison humaine de l'individu, à l'idéal communautaire et chrétien du moyen âge. L'association harmonieuse et énergique (synthèse) avait su réconcilier les données de la révélation et besoins de la raison humaine dans sa construction la plus complète, le système philosophique d'Aristote.

Sans tenir compte de tout ce qui les sépare et exprime les sévérité, les rigueurs de Calvin contre les « libertins », libres-penseurs au *XI^e* siècle, la Réforme française elle-même n'est-elle pas, pour une bonne part, expression de cet individualisme qui contredit la raison, le « sens propre » de chacun à la tradition de l'Eglise, à l'égare de hiérarchie et de l'ordre établi ? Ce qu'il y a de sûr, c'est que la France déchirée par les guerres de Religion n'a rien à arriver à l'Italie anarchique et sanglante du commencement du siècle : ce sont les mêmes violences, le pareil emportement des appétits et des instincts, la semblable excitation des énergies et des caractères, avec en plus cette sévérité et quelquefois cette épaisseur dans l'enthousiasme que peut seul donner l'intolérance religieuse d'un zèle aveugle dans le trouble général des esprits tout est remis en question et l'on discute les fondements de l'ordre politique et social aussi bien que les dogmes de la religion.

BIBLIOGRAPHY

Abel LEFRANC, Gargantua, Pantagruel, le Tiers Livre. Champion. 1913-1931.

(Surtout les introductions et les notes.)

Jean PLATTARD, OEuvres complètes de Rabelais. Editions F. Roches, Budé, 1929.

Jacques BOULENGER, OEuvres complètes de Rabelais. Bibl. de la Pléiade, 1934.

Verdun L. SAULNIER, Pantagruel. Edition critique sur le texte original. Droz,

1946. (Surtout l' introduction.)

Jean PLATTARD, François Rabelais. Boivin, 1932.

Jean PLATTARD, L'OEuvre de Rabelais (sources, invention et composition).

Champion. 1910.

Pierre VILLEY, Marot et Rabelais. Champion. 1923. (Seule la seconde partie est

consacrée à Rabelais.)

Georges LOTTE, La Vie et l'OEuvre de François Rabelais. Droz, 1938.

Lucien FEBVRE, Le Problème de l'Incroyance au XVI^e siècle, La religion de

Rabelais. Albin Michel, 1942. (Surtout : Première partie, livre II, et :

Deuxième partie, livre I, pages 159 à 360.)